

9/13/26

설교 제목: 변화산의 영광과 제자의 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7 장 1-13 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막 9:2-13; 눅 9:28-36)

-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낙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품고 여지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왕이 되기는 커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장차 당신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근접해 있던 헬몬 산이 아닌가 합니다.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저자 마태는 이 일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당신의 수난 및 죽음, 도래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지 옛새가 지난 후라고 날짜를 꼭집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굳이 옛새 후라는 날짜를 언급했을까요?

옛새 후는 이레(7)로 7은 승리의 완전 수이자,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수입입니다.

그러므로 '옛새 후'는 예수님께서 참 안식과 천국이라는 세 지평을 여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셋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을 선별하여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들의 피택은 이들 각자의 탁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다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열 두 제자들 중 핵심 구성원으로 택하시고, 당신 사후 교회를 이끌어 갈 책임 사역자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들 각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할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런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세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라다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위엄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여지껏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은 처음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큰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요청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놀라운 영광의 광휘와 영적 계시를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초막을 짓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심히 육신적이며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데도 베드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직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안식만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야 영광스러운 세계와 안식이 오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은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구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율법을 전해 준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변화된 영화로운 모습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있던 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하신 것은 사랑과 신적 권위에 입각한 예수님의 이중 명령이십니다.

이 이중적 명령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자,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인간이 지닌 심연의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평소처럼 서 계셨습니다.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함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본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잘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제자는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말라기의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출현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말 3:1)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를 메시아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여 끝내 죽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당신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그제서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란과 살인에 연루된 정치범 바라바 대신 로마를 반역한 반역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이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찬란한 영광에 매료되어 그곳에 머물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루셔야 할 십자가 죽음과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산 위의 영광만을 원하고, 산 아래의 십자가 희생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길은 영광만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 마침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핍박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코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